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2년 대한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 주제: 언어학 연구의 실제적 활용 - 이론, 교육 및 표기법을 중심으로
- 장소: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경영대학과 인문대 1호관 사이)
- 일시: 2012. 10. 20(토) 09:00 ~ 18:00
- 등록비: 1만원(점심 및 프로시딩스 포함)
- 주최: 대한언어학회
- 주관: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 후원: 한국연구재단, 전남대학교

- *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발간 되었음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제주방언의 강세구

이숙향 (원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서론

한국어 서울방언의 운율체계는 계층적 구조를 지니며 최상위층에 억양구가 있고, 강세구, 운율단어, 음절 순으로 층위가 내려온다(Jun 1993). 서울방언을 비롯한 다른 지역방언의 계층적 운율구조에 관한 연구는 더러 있으나 제주방언의 운율구조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가 억양구의 경계음조에 관한 연구로서 경계음조의 유형과 분포를 살펴본 고미숙(2005)과 이에 더 나아가서 세대 간,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본 고미숙 외(2007)가 있다. 이외에 제주방언 낱말의 음조패턴을 살펴본 정승철(1999)과 박순복(2005)이 있다. 그러나, 제주방언의 계층적 운율구조와 특히 강세구에 관한 연구는 이숙향(1999)을 제외하고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숙향(1999)은 2명(서귀포 출신, 당시 30대와 대정 출신 당시 20대)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제주방언의 강세구를 분석한 결과, 고음조로 끝을 맺으며 음절수가 증가하면서 둘째 음절에서 약간의 피치 상승이 있고 하강하여 마지막 음절에서 상승하여 전체적인 서울방언의 강세구 패턴인 'LHLH'와 유사하게 보이나, 실제 둘째음절에서의 피치 상승이 서울방언에서 관찰되는 것만큼 두드러지지 않아서 일단은 제주방언의 기본적인 강세구의 억양패턴은 'LH'인 것으로 분석하였다.¹⁾ 본 연구의 원래 목적은 이숙향(1999)의 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강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제주방언의 강세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여기서는 한 명의 피험자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친다.

2. 연구방법

2.1. 피험자

피험자는 3 그룹으로 나누어 음성자료를 채집하고 있으며 제주에서 출생하여 가능한 한 제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룹, 제주에서 출생, 성장하였으나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제주를 잠시 떠났다가 귀향하여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그룹,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출생, 성장하였으나 제주를 떠나 서울 등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룹이다. 여기서 분석한 피험자(LYK)는 둘째 그룹에 속하는 50대 초반 남성으로서 제주에서 출생하여 성장기를 거쳤다.

2.2. 시료

본 연구의 시료로는 억양구, 강세구의 전체적인 억양 패턴과 경계음조 유형만 아니라 강세구 내에서의 보다 상세한 특성, 즉 강세구의 억양 패턴과 음절수와 관계, 억양구의 경계음조 유형, 연자음의 유성음화의 범위(Jun, 1993), 강자음과 강세구 음조와의 관계를 보기 위

1) 즉, 첫음절의 'L'음조가 끝에서 둘째음절까지 지속되다가 마지막 음절에 'H'음조가 실현되는 것으로서 이숙향(1999)에서 이를 K-ToBI규약에 따라 표기하자면 'L Ha'로 분석하였는데 사실은 'L L+ Ha'가 보다 정확한 표기일 것이다.

하여 총 7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시료문장 내의 사선은 실험자가 의도하는 운율구 경계 표시로서 ‘/’은 강세구 경계를, ‘//’은 억양구 경계를 의미하며 피험자들에게 강세구나 억양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발화시 대부분의 경우 실험자의 의도에 맞는 프레이징(phrasing)을 해주었다. 각 피험자들은 54개의 문장을 5번 반복하여 무작위순으로 배열한 총 270개의 문장을 읽었다. 여기서는 아래 18개의 문장들의 강세구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절수와 강세구

1. 난 / 영미 / 미웁습니다.
2. 영안 / 영미 / 미웁습니다.
3. 영만인 / 영미 / 미웁습니다.
4. 영만이넌 / 영미 / 미웁습니다.
5. 영미 어머은 / 영미 / 미웁습니다.
6. 영만이 어머은 / 영미 / 미웁습니다.
7. 영만이 어머 이몬 / 영미 / 미웁습니다.
8. 영만이 어머 이모넌 / 영미 / 미웁습니다.
9. 영만이 어머 이모넌넌 / 영미 / 미웁습니다.
10. 영만이 어머 말젯아지방 / 영미 / 미웁습니다.

[2] 강자음과 강세구

1. 하르방 환갑날 / 사람들 / 하영 와난?
2. 우리 하르방 환갑날 / 모르는 사람들 / 잘도 하영 완.
3. 큰 아지방네 / 딸들은 / 서울에 잘 이수광?
4. 우리 큰 아지방네 / 곱닥헌 딸들은 / 서울에 잘 이수다.

[3] 유성음화 적용범위

1. 가인 / 가영이 / 무사 미웁허맨?
2. 영만이 가인 / 가영이 / 무사 미웁허맨?
3. 가인 / 우리 가영이 / 무사 미웁허맨?
4. 영만이 가인 / 우리 가영이 / 무사 미웁허맨?

2.3. 녹음 및 분석

피험자들로 하여금 조용한 곳에서 보통 말하는 속도와 크기로 위의 시료를 읽게 하였으며, Cool Edit Pro를 이용하여 16kHz 표본채취율(sampling rate)로 노트북에 직접 녹음하였다. 분석은 Wavesurfer 1.8.5를 이용하여 세 윈도우에 각각 분석대상 음성의 파형(waveform), 스펙트로그램, 그리고 억양곡선(pitch contour)을 동시간화(synchronize)시킨 후 음향 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강세구 억양패턴

화자 LYK의 운율구 특성비교분석을 위해 이숙향(1999)의 화자 KPW의 자료도 아래 제시했다(그림2). 그림 1의 LYK와 그림 2의 KPW 두 화자 모두 문장을 세 개의 강세구로 읽었으며 첫째 둘째 강세구의 끝은 고음조 Ha로 실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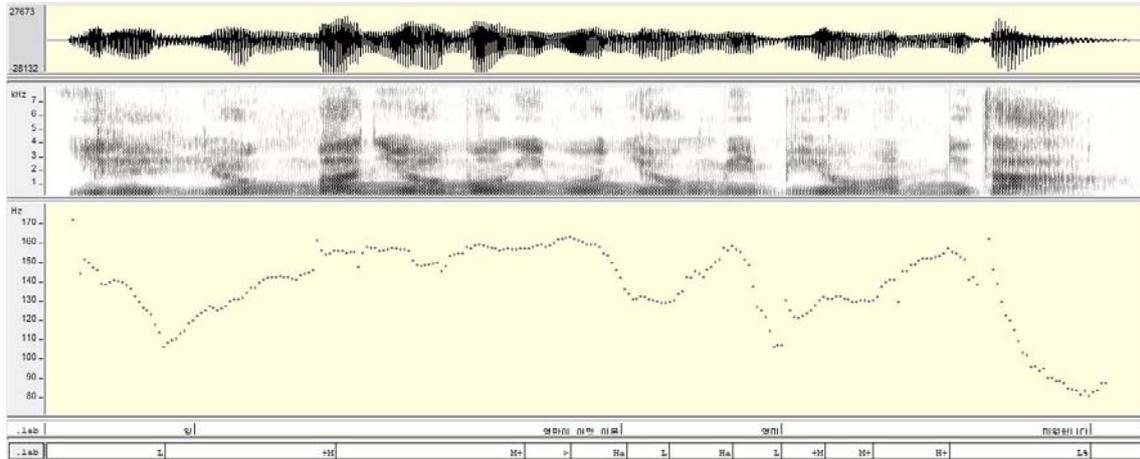


그림 1. 화자 LYK의 ‘일, 영만이 어떻 이몬/ 영미/ 미웁습니다.’의 억양곡선.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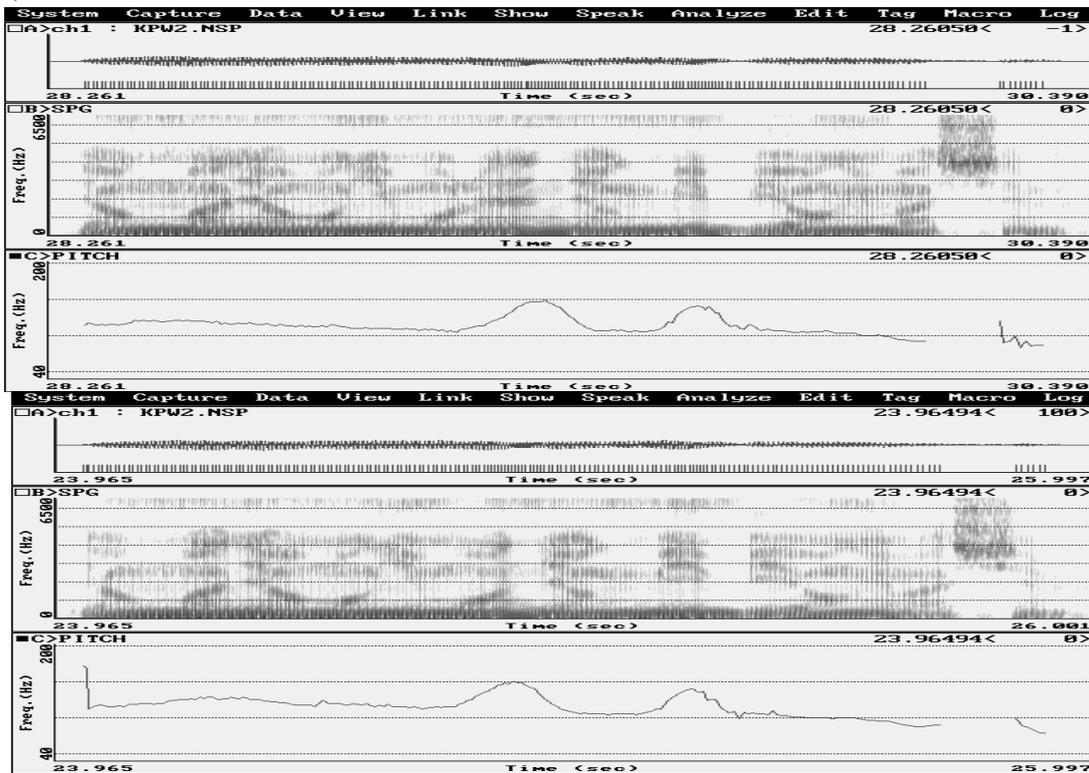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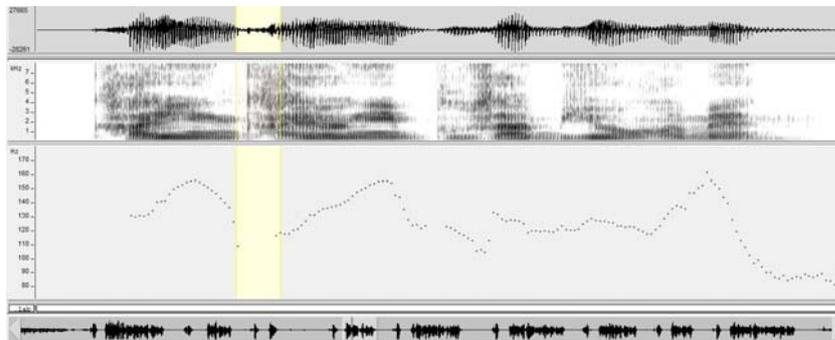
그림 2. 강세구 억양패턴. (a)‘영만이 어떻 이몬 / 영미 / 미웁해마썸.’ (b) ‘영만이 어떻 이모넨 / 영미 / 미웁해마썸.’의 억양곡선 (화자 KPW, 이숙향 1999 발췌).

그러나 강세구 끝을 고음조 Ha로 끝내는 것 외에는 두 화자 간 강세구 내의 억양패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둘째 강세구 ‘영미’를 보면 화자 LYK는 ‘L Ha’ 패턴인 반면

화자 KPW은 'L L+ Ha'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후자 화자는 '영미'의 첫 음절을 내내 저음조로 유지하고 있다가 둘째음절 후반부에서 H로 올라가는 반면 전자는 첫음절을 저음조로 시작하여 둘째음절 후반부까지 지속적으로 피치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강세구는 KPW의 억양패턴을 이숙향(1999)에서는 'L +H L+ Ha'와 'L Ha'의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中间的 작은 규모의 상승과 하강을 무시하고 후자로 결론을 내렸다.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분석상의 오류로서 中间的 작은 규모의 상승과 하강을 언어학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무시하기로 한다하더라도 'L Ha'가 'L L+ Ha'로 분석했어야 했다. 화자 LYK의 첫 강세구는 실험자의 청각상의 판단과 음향분석에 의하면 피치상승이 두 번 있으며 첫 상승과 둘째 상승간에 하강이 안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두 상승에 대해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며 그림 1에서처럼 우선은 중간음조인 M를 설정하고 'L +M M+ Ha'로 분석하였다. 두 개의 M은 마지막 강세구 '미웁습니다'의 억양패턴 분석을 수월하게 해준다. '미웁습니다' 첫 음절에 L, 둘째 음절에서 셋째 음절까지 M을 유지하고 넷째 음절이자 끝에서 둘째 음절에서 제주방언 특유의 H가 나타나고 L% 억양구 경계음조로 끝을 맺는 것으로 'L +M M+ H+ L%'로 분석 가능할 것 같다. 이 화자의 강세구 억양패턴 분석을 위해 M 음조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보다 많은 화자들의 억양분석 후로 미루기로 한다.

3.2. 연자음의 유성음화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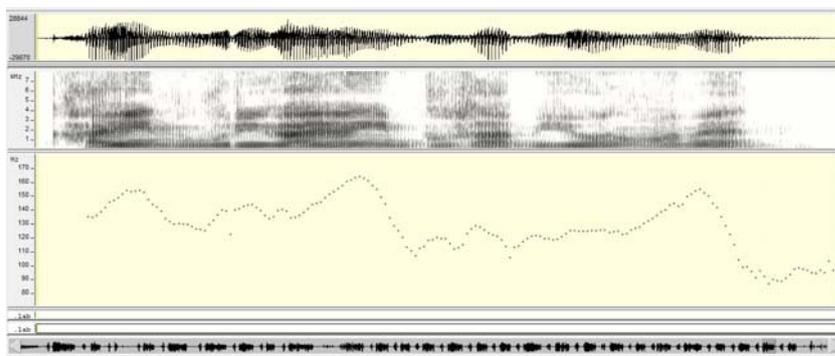


그림 3. 유성음화 적용범위. 화자 LYK의 (a) '가인/가영이/무사 미웁허맨?'과 (b) '가인/우리 가영이/무사 미웁허맨?'의 억양곡선

우리말 강세구와 분절음 레벨에서의 음운현상과의 관계 규명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연

자음의 유성음화이다(Jun, 1993). 우리말 (적어도 서울, 전남 방언)에서 연자음의 유성음화는 강세구 내에서 일어나며 강세구 경계를 넘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강세구 중간에서는 유성음화가 일어나지만 강세구 초에서는 무성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림 3에서처럼 (a)에서는 ‘가인’과 ‘가영이’ 사이(두 개의 직선 사이)에 피치곡선의 끊김이 보이거나 (b)에서는 ‘우리’와 ‘가영이’ 사이에 끊김을 보이지 않는다. 즉 (a)의 ‘가영이’의 /k/는 강세구 시작 부분에 있어 유성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반면 ‘우리 가영이’의 /k/는 강세구 내에 있어서 유성음화 적용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제주방언의 연음 유성음화 범위 또한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강세구임을 알 수 있으며 이숙향(1999)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3.3. 강자음과 강세구 억양패턴

우리말의 강자음(경음, 유기음, /h/, /s/)이 강세구 초에 오면 ‘H’음조로 시작하며 둘째음절까지 ‘H’음조가 지속되다 하강한다(Jun, 1993; 문수미, 1999 등). 제주방언에서도 그림 4에서와 같이 강자음으로 시작하면 고음조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4개의 강세구 중 첫 3개의 강세구 ‘하르방’, ‘환갑날’ ‘사람들’은 모두 저음조가 아닌 고음조(또는 중음조로) 시작하여 그 음조를 한동안 유지하는 반면, 마지막 강세구인 ‘하영 와난?’은 고음조로 시작하긴 하나 바로 하강하고 있다. 이숙향(1999)에서도 두 가지 패턴 모두 관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와는 달리 같은 화자 내에서가 아니라 두 화자 간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즉, 한 화자는 바로 하강하는 패턴을 보인 반면 다른 화자는 둘째음절까지 고음조를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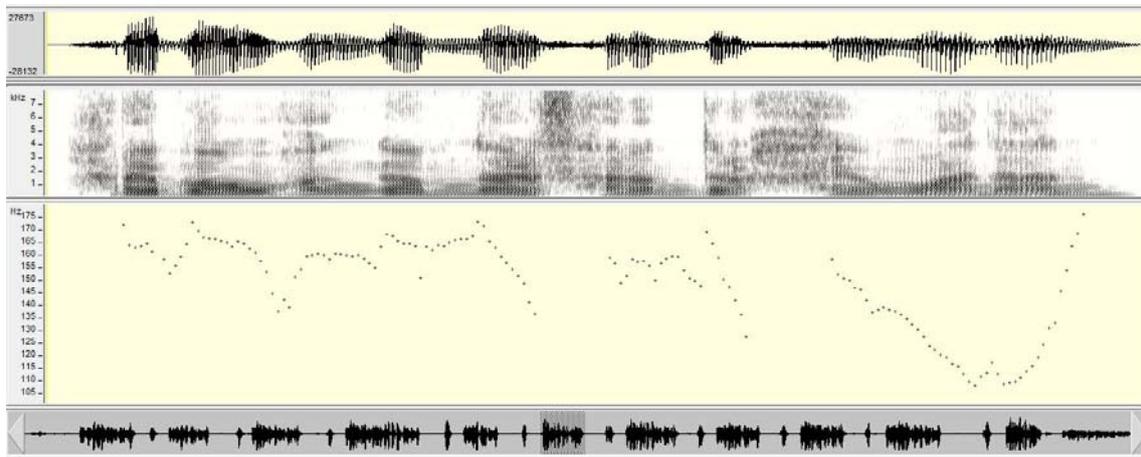


그림 4. 강세구 초 강자음과 억양패턴. ‘하르방/ 환갑날/ 사람들/ 하영 와난?’의 억양패턴.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방언의 운율구조 연구의 시작 단계로서 이숙향(1999)에 이어 한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제주방언의 강세구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제주방언의 강세구의 억양패턴이 타 지역방언보다 다양할 수 있음을 보았다. 대중매체의 보급과 학교에서의 표준어 사용 등에 의하여 어휘 사용이나 음성 음운론적 특성에서 급변하고 있는, 따라서 세대 간 많

은 차이를 보이는 제주방언 특성(예, 모음체계의 변화: 김원보 2006, 고동호 2008, 억양구
경계음조의 변화: 고미숙 외 2007)을 고려하여, 이런 다양성이 개인간 차이인지 세대별 차
이인지 또는 지역간 차이인지 추후 연구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실 내에서 통제된 발성만이 아니라 자연발화 상황에서의 발성 자
료를 가지고 제주방언 운율구조의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연구 수행을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미숙(2005) 제주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34집, 1-16, 2005.
고미숙, 김원보, 변길자, 김종훈, 박순복, 오창명(2007) 제주방언의 연령대별 억양구 경계성
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제 42집, 2007.
문수미(1999) 한국어 액센트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자음 및 음절구조와 관련하여,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순복(2005) 제주방언의 낱말 악센트, 말소리 제55호 33-43, 2005
이숙향(1999) 제주방언 억양패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한국음향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8(2), 369-372. 1999
정승철(1999)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 진단학보 88권, 543-554, 1999
Jun, S.-A.(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Doctoral
Dissertation, Linguistics, Ohio State University.

발표자: 이숙향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연락처: 010-3004-6913

e-mail: shlee@wku.ac.kr